

데이터베이스는 시테크의 필수요소이다

윤은기/정보전략연구소장

지구촌은 이제 '사이버 경제'로 진입하고 있다. 사이버 경제란 사이버스페이스(Syber Space) 안에서 주된 경제활동이 벌어지는 사회를 말한다. 이런 사이버 경제시대는 무엇보다도 '속도의 경제(Economies of Speed)'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빠른 것이 아름답다"

"빠른자가 승리한다"

"빠르면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 속도의 경제인데, 이미 앨빈 토플러는 정보화 사회가 '큰 것과 작은 것', '강한 자와 약한 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재편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빠른자(The Fast)란 누구일까?

필자는 세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정보가 빨라야 한다. 둘째는 의사결정이 빨라야 하고, 셋째는 실행이 빨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가지가 빠르면 빠른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동작이 좀 느린 것 같은데도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동작이 느려보여도 정보와 의사결정이 빠르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 반면에 이리뛰고 저리뛰고 정신없이 분주한데도 좀처럼 성과가 안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보가 늦고 의사결정이 지체되는 것이 공통점이다.

필자는 그동안 '속도의 경제'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시테크' 이론을 주창하고 보급해 왔다. 시테크의 핵심적 사상은 정보와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적은 시간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동시에 여유시간을 창조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시테크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가장 소중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양과 질에서 결정될 것이다.

손가락만 두드리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와 다리품을 팔아야 정보를 얻는 사회는 우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는 사회로부터 얼마나 적은 시간에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로 기준이 바뀐 오늘날 데이터베이스가 성공의 공유자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DC**

■ 고려대 심리학과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대학 및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강사 역임. 현재 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며, 정보전략에 관한 영역과 강의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시테크 전략을 창안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저서로는 '시테크', '시테크성공학', '스마트경영' 등이 있다.